

산청 도전리마애불상군 연구

김 순 정*

< 목 차 >

- I. 머리말
- II. 불상군의 배치 및 지리적 특징
- III. 형식분류와 불상군의 유형별 특징
- IV. 조성시기 및 명문검토
- V. 맺음말

국문요약

도전리마애불상군(道田里磨崖佛像群)은 경상남도 산청군 생비량면을 가로질러 흐르는 양천강을 따라 동서로 길게 이어진 구룡의 절벽면에 조성되어 있다. 한 장소에 수십구의 여래상이 배치되어 있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인 것이며,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조성된 점 또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확인되는 여래상은 32구로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불상들을 묶어 크게 3유형으로 나누었으며, 같은 도상이라 하더라도 조각기법과 표현의 차이를 통해 다수의 장인이 제작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도전리마애불상군은 연화대좌 위에 결가부좌한 좌상의 형태로 공수형 수인을 결한 상이 가장 많으며, 대부분이 'V'자형 통견식 착의법에 원형의 두·신광을 가졌다. 낮고 둥근 육계에 나발은 표현되지 않았으며, 얼굴은 마모가 심하여 이목구비를 확인할 수 없다. 움츠린 어깨에 탄력 없이 평면적인 방형의 신체, 도식화된 옷주름이 특징이다. 세부모습이나 자세, 착의법에서 통일신라 말기 양식을 충실히 계승하려 하였지만, 탄력적인 측면이나 움직임의 표현 등에서 헤이하고 형식화된 경향을 보인다. 통일신라기를 거쳐 고려에 이르면서 중앙의 미술활동이 약화되는 반면, 지방에서 활발한 조상활동이 이루어져 이른바 지방양식이 등장하는 시대적 특징을 따른 불상으로 판단된다. 절대연대가 있는 마애불과 비교해보

* 한국문화연구원 연구원

면, 10세기 전반까지는 경주 배리 윤을곡마애불좌상(835), 하남 교산동 마애약사 여래좌상(977이전)과 같이 통일신라의 전통 양식을 따르는 경향을 보이지만, 10세기 후반에는 이천 장암리 마애보살반가상(981), 고령 개포동 석조관음보살좌상(985)과 같이 토속적인 모습의 개성이 뚜렷한 형태로, 표현이 간결하고 투박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도전리마애불상군의 경우 아담한 크기와 단정한 상의 이미지, 전통요소를 충실히 계승하고자 한 상임을 고려할 때, 조성시기는 10세기 전반을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불상의 광배 좌측 또는 우측에는 음각 명문이 새겨져 있다. 명문은 현재 32구의 불상 중 19구에서 확인되며, 대부분의 글자는 마모가 심하여 판독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다만 生, 里, 先(光)生 등으로 끝나는 단어들로 미루어보아 불상 조성에 참여한 발원자와 관련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지역민의 공덕신앙과 연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전리마애불상군이 조성된 시기는 10세기 전반으로 추정된다. 당시 태조 왕건은 분열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불교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였고 불교를 고려의 중심사상으로 삼았다. 또 백성들은 혼란한 시기의 정신적 귀의처로 불교를 신앙하였으며, 불교와 함께 산악숭배신앙 역시 중요한 사상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도전리마애불상군에서 존명을 알 수 있는 불상은 아미타불과 약사불로 이는 현세구복적인 신앙의 대표적인 여래이다. 각 지방에서는 향도조직들을 중심으로 공덕을 쌓기 위한 불상의 조상 행위 및 각종 불사가 행해졌고, 이는 산청지역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이다. 불상군이 조성된 곳은 오랜 시간 동안 주요 교통로로 이용되어 사람들의 왕래가 잦았던 곳이며, 삶의 터전인 강을 따라 펼쳐진 나지막한 구릉의 절벽은 당시 불교문화와 예로부터 전해지는 산악숭배신앙이 융합된 장소로서 그 지역민들의 공덕신앙을 표출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도전리마애불상군, V자형 통견식 착의법, 공수형 수인, 아미타불, 약사불, 현세구복, 공덕신앙.

I. 머리말

경상남도 산청군의 양천강을 따라 동서로 길게 이어지는 구룡 끝에 생비량면의 어은(漁隱)마을이 자리하고 있으며, 마을 입구의 '부처담'이라 불리는 자연암벽에 도전리마애불상군(道田里磨崖佛像群)이 조성되어 있다.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09호로 지정되어 있는 도전리마애불상군은 한 장소에 여래상만 서려연구가 새겨진 희귀한 예이며,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조성되어 일반적인 마애불의 표현과 다른 점에서 주목된다.

도전리마애불상군은 통일신라시대의 전통적 요소를 지니고 있음과 동시에 표현은 간결하고 평면적이며, 다양한 도상과 기법적 특징으로 인해 통일신라시대에서 고려시대까지 조성시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현상과 조성연대에 관해 고찰한 논문은 성춘경의 논문이 유일한데, 양식상 불상군의 연원이 삼국시대까지 상한하는 예가 있고 하한 양식은 14~15세기로 볼 수 있지만, 광배·착의·수인·대좌의 양식비교를 통해 중심연대를 10~11세기 경으로 보았다. 하지만 각 도상에 대한 분석 및 지리적 특징, 군상을 이루고 있는 마애불이

1) 慶尙南道, 1995, 『慶南文化財大觀』, 錦昌印刷社.

山淸郡誌編纂委員會, 2006, 『山淸郡誌』上.

- '담'은 경남지역에서 '바위'의 방언으로 사용되고 있는 말로, '부처담'은 '부처바위'로 풀이할 수 있다. 예로부터 마애불상군이 위치한 구룡을 '부처담'이라 불렀다고 전할뿐, 문헌에서 관련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2) 지정연도 : 1982년 8월 2일 / 소재지 : 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도전리 어은마을 산 61-1

3) 본 연구를 진행할 당시 확인된 불상은 총 32구였으나, 최근 국립진주박물관의 조사에서 4구가 추가로 발견되어 총 36구가 되었다. 새로 발견된 4구의 불상은 대좌 및 신체의 극히 일부뿐만이 잔존한다. 국립진주박물관, 2011, 『산청』, pp.88~98.

4) 도전리마애불상군이 위치한 산청군 생비량면의 주민센터 홈페이지(www.sancheong.ne.kr)에서는 불상군을 '통일신라시대' 작품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행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000)에서는 '신라말 고려초'의 작품으로 보았다. 慶尙南道, 1995, 『慶南文化財大觀』, 錦昌印刷社. 와 문화재청의 지정문화재 안내 설명에서는 불상군의 연대를 '고려시대'로 언급하고 있으며, 이태호·이경화, 2001, 『한국의 마애불』, 다룬세상. 에서는 13~14세기 작품으로 보고 있다.

5) 성춘경, 2007, 「山淸 道田里磨崖佛像群의 考察」, 『文化史學』27, 韓國文化史學會, pp.629~655. 그 외 보존처리 및 정비에 관한 보고서 - 최석원·이찬희·서만철, 2001, 「산청 도전리 마애불상군의 산출상태와 훼손 및 보존방안」, 『지질학회지』제37권 제3호 통권148호, 대한지질학회, pp.393~406. ; 산청군, 2001, 『도전리 마애석불군 정비공사 보존처리』, 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연구소. ; 한정식·서만철, 2003, 「사진을 이용한 도전리 마애불 3D Modeling (3D Modeling use a Photograph, Rock Cliff Buddha, Dojeonri)」, 『문화재과학기술』Vol.2. ; 산청군, 2008, 『도전리마애불상군 보존처리 및 주변정비공사 보고서』.

리는 특성에 관한 연구는 미진한 상태로 생각된다.

본 고에서는 각 여래상의 도상별 형식분류를 통해 여래상의 구성을 파악하고, 기법 및 도상이 유사한 불상들을 묶어 각 유형별 특징에 관해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대표적인 상의 도상 및 표현기법을 통해 편년을 시도하고, 나아가 조성 장소의 지리적 특징 및 조성 당시의 역사적 배경에 관한 고찰을 통해 조성 배경을 추정해보려고 한다.

II. 불상군의 배치 및 지리적 특징

불상군이 새겨진 암벽면은 너비 7.2m, 높이 1.8m이며, 수직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반암의 상부가 앞으로 약 25°가량 돌출되어 있다. 도전리 일대의 기반암은 쇠설성 퇴적암 기원의 담회색 장식질 사암(arkosic sandstone)으로⁶⁾ 층리와 평행하게 박판으로 박리되어 약한 충격에도 잘게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지질의 특성상 불상군이 조성된 암벽은 횡방향의 균열과 함께 판상으로 떨어져 나가는 현상으로 인해 면이 고르지 않고 단이 진 형태이며, 불상을 조성할 수 있는 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맞추어 각 불상을 새겨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⁷⁾(도 1)

불상군이 새겨진 벽면은 종방향의 균열에 따라 크게 3면으로 나뉜다.⁸⁾ 또 판상으로 면이 떨어져 나가는 암벽의 특성에 따라 각 면은 3~4단의 계단형 층을 이룬다. 즉 각 공간의 크기와 높낮이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곳에 불상을 조성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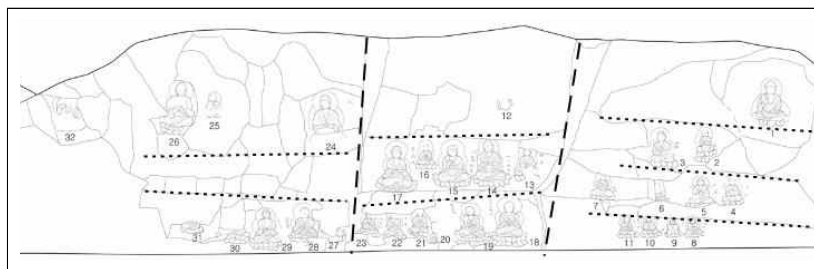


그림 1. 불상군의 배치

6) 강필중·박석환, 1975, 『한국지질도 삼가도폭 및 설명서』, 국립지질광물조사소, p.16.

7) 각 불상의 현상 및 위치 파악을 위해 1/20 크기의 실측도면을 작성하였다. (도 1)

8) 향우측면, 중앙면, 향좌측면의 3면으로 나누었다.

고자 하였을 때에는 처음부터 대형 마애불의 조성을 구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실제 조성된 불상의 높이는 대부분 20~40cm 내외이며, 불상을 새길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각 면에 1구 또는 2~6구의 불상을 조성하였다.

본 고에서는 편의를 위해 동쪽 끝 상단에 있는 불상부터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각 불상의 번호를 매겼다. 현재 확인되는 각 상의 배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번 불상은 불상군이 새겨진 암벽면의 동쪽 끝 최상단의 움푹 파인 공간 내에 조성하여, 마치 감실 내에 봉안된 것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 이와 같은 표현은 불상군 내에서 유일한 것으로, 이 불상이 새겨진 위치와 같은 높이의 감실 바깥쪽으로 이어진 면에 불상을 새길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조성 흔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감실 내에 조성된 1번 불상은 전체 불상군 내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 상이라 생각된다. 1번 불상 아래로 2구(2,3번), 그 아랫단에 4구(4~7번), 그 아래에 4구(8~11번)의 불상이 확인된다. 다음은 불상군의 전체 배치에서 중앙에 해당하는 면으로서 가장 윗단에 머리 형태를 외곽선으로만 새기다 중단한 1구(12번), 그 아랫단에 5구(13~17번), 그 아래에 6구(18~23번)의 불상이 확인된다. 다음 향좌측면은 윗단에 3구(24~26번), 아랫단에 5구(27~31번)를 새겼으며, 아랫단의 5구 불상 중에서 3구는 하반신 일부와 대좌만이 잔존한다. 32번 불상은 나머지 불상들이 조성되어 있는 암벽면으로부터 약 80c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결락면과 훼손된 상태의 불상들을 통해 볼 때 조성당시에는 지금보다 많은 수의 불상이 조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확인되는 불상은 총 32구이며, 남아 있는 상들 역시 마멸과 인위적인 훼손으로 보이는 손상으로 인해 신체 일부가 결락되거나 윤곽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도전리마애불상군이 위치한 생비량면은 조선시대 말까지 '단성현 도성면'에 속하였던 곳으로⁹⁾ 합천과 진주, 산청의 경계지점에 해당하며, 양천과 사정천이 합류하여 남강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해당한다. 도전리마애불상군이 조성된 위치의 옛 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 기록으로 『新增東國輿地勝覽』丹城縣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전한다.

<산천> 신안진(新安津) : 현 동쪽 5리 지점에 있다. 곧 산음현 우탄 하류인데, 진주 소남진(召南津)을 지나서 남강(南江)이 된다.

<누정> 신안루(新安樓) : 판 이름은 강루(江樓)이다. 현 동쪽 5리 지점에 있으며,

⁹⁾ 山淸郡誌編纂委員會, 앞의 책.

동쪽 돌벼랑에 달려 있는 듯하다. 매년 여름 장마 때면 위태하던 돌이 가끔 강에 떨어진다. 옛날 강성군이던 때에 태수(太守)가 밤에 객과 기생과 함께 배를 타고 물을 거슬러 돌며, 술을 마시는 중에 돌이 떨어져서 배에 있던 자는 모두 빠졌고, 고을 인(印)도 잃었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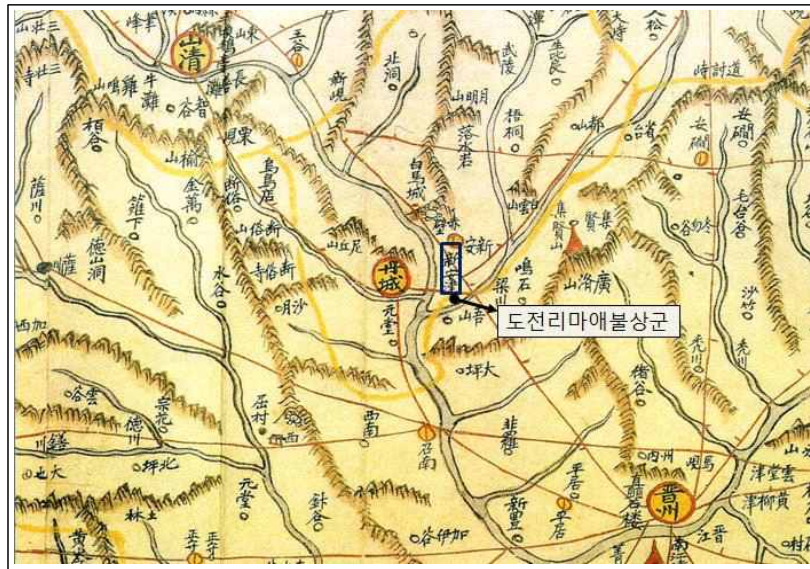


그림 2. 『東輿圖』에서 확인되는 '신안진(新安津)'과 도전리마애불상군의 위치

『東輿圖』에서 확인되는 신안진의 위치는 기록에서와 같이 현의 동쪽 5리 지점으로 마애불이 위치한 곳과 거의 일치한다. 즉 마애불이 위치한 곳에는 '신안'이라는 나루터가 있었으며, 이곳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천과 사정천이 합류하여 남강으로 이어지는 지점으로서 교통의 요지였음을 알 수 있다.

신안루 역시 현의 동쪽 5리에 위치한 것으로 '벼랑에 달려 있는 것 같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마애불이 위치한 구릉 어디쯤에 양천을 내려다보는 누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매년 여름 장마 때면 위태하던 돌이 가끔 땅에 떨어진다'고 하여 낙석현상이 심한 지금의 절벽면 특징과도 일치한다. 위의 내용들은 조선시대에 기록된 것이기는 하나, 위치의 중요성 및 지형적 특징은 마애불 조성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 도전리마애불상군이 조성된 구릉 안쪽의 어은마을은 예로부터 '절골'이라고도 불렸으며, '폐사지'¹⁰⁾도 확인되었던 것으로 보아 마애불과 관련한 불교유적이 위치하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나 현재로서는 폐사지의 위치가 명확하지

¹⁰⁾ 山淸郡誌編纂委員會, 앞의 책, p.513.

않으며, 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어 확인이 어려운 상태이다. 다만, 어느 시기에 양천강과 함께 이어지는 절벽구릉과 계곡부에 위치한 마을을 배경으로 한 불교 문화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도전리마애불상군과 같이 강을 바라보는 절벽면에 새겨진 마애불로는 봉화 북지리 마애불좌상, 충주 중원 봉황리 마애불상군, 여주 계신리마애불입상, 충주 창동마애불입상 등이 있다. 대체로 강의 합류지점에 해당하는 길목으로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산 중이 아닌 앞이 트인 강가에 새겨진 부처를 향해 물길을 오가는 사람들은 안전을 빌었고, 마을사람들도 각자의 염원을 빌며 제사를 지냈다고 전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의 수호신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도전리마애불상군의 경우도 그러하듯이 마애불을 조각한 바위의 재질이 불상을 새기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¹¹⁾ 이는 불상을 완벽하게 조각하기 위한 바위를 선택하기보다 어느 특정 장소 또는 신앙을 배경으로 그 위치에 불상을 새기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들이 대체로 바위의 원형을 살리면서 불상을 새긴 점에서도 신령스런 바위의 형태와 주변 환경과의 조화로움을 우선시한 것으로 판단된다.¹²⁾

Ⅲ. 형식분류와 불상군의 유형별 특징

1. 형식분류

도전리마애불상군의 여래상은 각기 다양한 크기와 기법으로 새겨졌다. 대부분의 불상이 원형의 두·신광에 ‘V자형’통견식 착의법, 연화대좌 위에 결가부좌한 좌상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으나 대표적인 특징들 안에서도 표현기법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공간의 한정성과 함께 한명이 아닌 다수의 장인에 의해 조성되었을 가능성을 짐작하게 한다. 여기에서는 조각기법과 수인의 형식분류를 통해 각 불상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¹³⁾

¹¹⁾ 불상군의 구성암석은 심한 기계적 및 화학적 풍화작용을 받은 장석질 사암으로서 본체에는 수평 또는 수직에 가까운 단열대가 발달하여 여기에서 파생된 30여개의 전단면이 마애불상군을 기계적으로 풍화시키고 있다.(주5 최석원·이찬희·서만철, 앞의 논문, pp.393~406.)

¹²⁾ 이태호·이경화, 2001, 앞의 책, p41.

¹³⁾ 32구의 여래상 중에서 얼굴의 외곽선만 조각된 12번 불상과 마멸이 심한 25번, 총고가 9cm로 형태가 명확하지 않은 20번, 하반신을 제외한 상반신 전체가 훼손된 27, 30, 31번 불상은 형식분류에서 제외하였다.

1) 조각기법

조각기법은 먼저 광배의 표현법에 따라 원형의 두·신광을 선각으로 새기고 불상을 부조로 표현한 것(A)과 광배 내부를 파냄으로써 불신(佛身)의 상반신을 도드라지게 표현한 것(B)으로 나눌 수 있다. B는 광배 내부를 파낸 깊이에 따라 불신의 도드라진 정도가 달리 표현되었는데, 광배 내부를 파냄으로써 상반신을 부조로 표현하고자 한 불상을 a, 부조로 표현하고자 하였으나 파낸 깊이가 얇아 선각에 가깝게 표현된 불상을 b로 다시 나누었다. 조각기법에 따른 분류는 훼손 및 마모로 인해 파악이 어려운 7구를 제외한 25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 1. 조각기법에 따른 분류

유형		불상번호
A		1,24,26
B	a	14,15,17,18,19,28,29
	b	2,3,4,5,6,7,8,9,10,11,13,16,21,22,23




A	B	
	a	b
		
1번	29번	8번
광배-선각 / 불신-부조	광배-음각 / 불신-상반신부조	광배-음각/불신-선각에 가까운 부조

그림 3. 조각기법에 따른 분류

A에 해당하는 불상은 1, 24, 26번으로 모두 최상단에 위치하며 넓은 공간에 단독으로 조성된 경향을 보인다. 나머지 불상들은 모두 광배 내부를 파내어 불신을 도드라지게 표현하고 있으나 1, 24, 26번 상은 광배를 선각으로 새기면서 불신을 저부조로 표현하였다. 낮고 둥근 육계와 타원형의 얼굴, 손목에서 늘어진 대의 자락이 무릎 뒤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린 모습 등 조각기법에서 유사점이 확인된다.

B-a는 광배 내부를 파내어 얼굴과 상반신을 도드라지게 표현하고 하반신과 대좌는 선각으로 새긴 것으로 불상군이 조성된 3면 중 중앙면에 주로 분포하며, 모두 'V'자형 통견식 착의법에 양 손이 드러난 수인을 결하고 있다. 정연한 옷주름의 간격, 복부의 'U'자형 주름, 손목에서 무릎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린 대의자락의 표현과 결가부좌한 다리에 감겨진 균의의 ' ('자형 주름, 입체감 있게 표현한 대좌 등에서 유사한 조각기법이 확인된다.

B-b는 광배 내부를 파내어 부조로 표현하고자 하였으나 깊이가 얕아 선각에 가깝게 표현된 상들이다. 주로 향우측면에 위치하며, 중앙면에 있다 하더라도 불상이 새겨지기에 좁은 공간에 조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⁴⁾ A나 B-a에 해당하는 상들과 비교하였을 때, 세부표현이 현격히 간략화 되었으며, 양손이 대의에 가려진 공수형 수인을 결한 불상이 모두 B-b에 해당하는 점이 주목된다.

같은 도상이라 하더라도 조각기법과 표현에 차이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다수의 장인이 불상군 제작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불상의 조각기법 및 도상의 조합양상은 불상군의 유형별 특징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수인

불상의 수인은 불상의 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도전리마애불상군의 수인은 크게 공수형, 선정인, 약기인, 설법인, 하품인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마모로 인해 손의 형태가 뚜렷하지 않은 상들 역시 대부분 가슴 앞으로 두 손을 들어 올린 형태이다. 가장 많은 불상이 결하고 있는 수인은 공수형으로 11구가 해당된다.

표 2. 수인에 따른 분류

수인	불상번호
공수형	2,4,6,8,9,,10,11,16,21,22,23
선정인	14,17,19,24,28,29
약기인	③,⑤,⑮,18,⑳
설법인	7,㉑
하품인	1

※ '○' 잔존형태를 통한 추정

¹⁴⁾ 기준에 조성된 상들(B-a) 사이에 필요에 의해 새겨 넣은 것으로 보이며, B-a불상과 비교하였을 때 크기가 작고, 표현기법도 간략화 되었다.

(1) 공수형

몸 앞에서 맞잡은 두 손이 대의 자락에 가려진 형태의 공수형 수인은 도전리 마애불상군의 불상이 결하고 있는 수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一(일)’자형과 ‘^ (삿갓)’형의 두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一’자형 공수형 수인을 결한 상은 2, 4, 6, 8, 9, 10, 11번 상으로 7구이고, ‘^’형 공수형 수인을 결한 상은 16, 21, 22, 23번 상으로 4구가 해당된다.

이러한 공수형 수인을 결한 불상은 경주 남산 불국 마애여래좌상(7세기), 경주 남산 탑곡 마애불상군(7세기) 등 비교적 이른 시기의 불상에서부터 확인된다. 공수형 수인의 연원과 존명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一’자형 수인에 대해서는 가려진 손의 위치와 자세를 통해 선정인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며,¹⁵⁾ ‘^’형 수인은 비로자나불이 결한 지권인의 변형이라는 견해와 다보여래가 취한 합장인이라는 견해가 있다.¹⁶⁾



그림 4. 도상집에서 확인되는 공수형 수인

15) 金理那, 2003, 『韓國古代佛教彫刻 比較研究』, 문예출판사, p.19.

朴洪國, 2005, 「手印이 法衣에 가려진 新羅 佛像 小像」, 『新羅文化』26, pp.303~329.

16) 姜友邦, 1990, 『圓融과 調和』, 열화당, p.474.

성춘경, 1999, 『전남불교미술연구』, 學研文化社, pp.113~116.

18세기 중반(1753년)에 조성된 선암사 괘불 상단의 좌측(向右)에는 탑이 있고, 우측(向左)에는 10여래가 있는데 이 중 3구는 합장인, 2구는 옷주름에 가린 ^형 수인을 하고 있다. 이들 합장인과 ^자형의 수인의 여래를 선암사에서는 다보여래라 전하고 있다. 이들 여래가 다보여래라는 점에서 이 ^자형 수인은 합장인일 가능성이 더 크다.

각종 도상집에서는 ‘화불’ 또는 ‘정광불’로 소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수형 수인은 다불로서 장엄의 효과를 내는 탑상문전, 광배의 화불과 같이 여러 구의 불상이 함께 조성된 경우에 주로 확인되는 점이 특징이다.

공수형 수인은 7세기 이후 조선시대까지 꾸준히 조성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그 수가 많지는 않아 널리 유행한 양식은 아닌 것 같다. 다만, 공수형 수인을 결한 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을 살펴보면, 크게 경북 경주일대와 전라도 일대의 석불상들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경북 경주 일대에서 확인되는 공수형 수인을 결한 불상은¹⁷⁷ 모두 좌상이며, 맞잡은 손을 배 앞쪽에 내려놓고 있다. 이 일대의 공수형 수인은 모두 ‘—’자형이며, ‘^’형 공수형 수인은 확인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또 손을 감싼 대의 자락 끝을 밖으로 빼낸 것처럼 표현된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가슴과 배 사이의 높이로 손을 들어 올린 채 양쪽 손을 모아 대의자락의 소매에 해당하는 부분을 서로 맞댄 형태의 도전리마애불상군 공수형 수인과는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지리산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전라도 일대 석불상들¹⁸⁸에서도 이와 같은 공수형 수인이 유행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전남 화순 운주사의 석불상¹⁹⁹ 및 조선시대의 불상에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라도일대의 공수형 수인을 결한 상들은 대부분 석불입상이며, 도전리마애불상군에서 확인되는 ‘—’자형과 ‘^’형 공수형 수인이 모두 나타나고 있다.

도전리마애불상군이 위치한 산청은 행정구역상으로 경남에 해당하지만, 공수형 수인을 결한 석불입상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전라도 일대와 인접한 지역으로,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문화권 내에 속하는 지역이기도 하다.²⁰⁰ 전라도일대의

177 경주 남산 불곡 마애여래좌상, 경주 남산 탑곡 마애불상군, 경주 보리사 마애석불, 경주 석장사 지 탑상문전(塔像紋傳) 등

188 李康豪, 2008, 『高麗前期 南原地域 石造佛像 研究』, 弘益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공수형 수인을 결한 전라도 불상 예.

전라남도	전라북도
남원 용담사 석불입상(540cm)	임실 학정리 석불입상(245cm)
남원 개령암지 마애불입상(본존/420cm)	임실 오수리 석불입상(350cm)
곡성 죽산리 석불입상(233cm)	부안 용화사 석불입상(450cm)
장흥 고산사 석불입상(495cm)	장수 원흥리 석불입상(400cm)
장성 원덕리 석불입상(500cm)	김제 흥복사 석불입상(265cm)

199 운주사의 석불군은 발굴조사를 통해 11~12세기로 보는 견해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조성시기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그 상한은 12세기 정도로 생각된다.

200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2004, 『지리산문화권』, 역사공간, p.23.

지리산문화권은 지역적으로 크게 서쪽의 섬진강·남원문화권, 동쪽의 남강·진주문화권 등으

공수형 수인을 결한 석불입상들은 크기가 2~5m에 이르는 거석불로 주로 고려 초에 조성된 작품들이다. 도전리마애불상군과 유사한 형태의 공수형 수인을 결한 전라도 일대 불상들의 분포현황은 (그림 5)와 같다.

이중 개령암지마애불상군은 도전리마애불상군이 위치한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으며, 자연암벽에 새겨진 마애불로 ‘군(群)’을 이루고 있는 점 등 유사점이 많은 상으로 주목된다. 본존에 해당하는 높이 4.2m의 입상이 ‘一’자 공수형 수인을 결하고 있으며, 2구의 입상과 1m 내외의 좌상 10구로 이루어졌다.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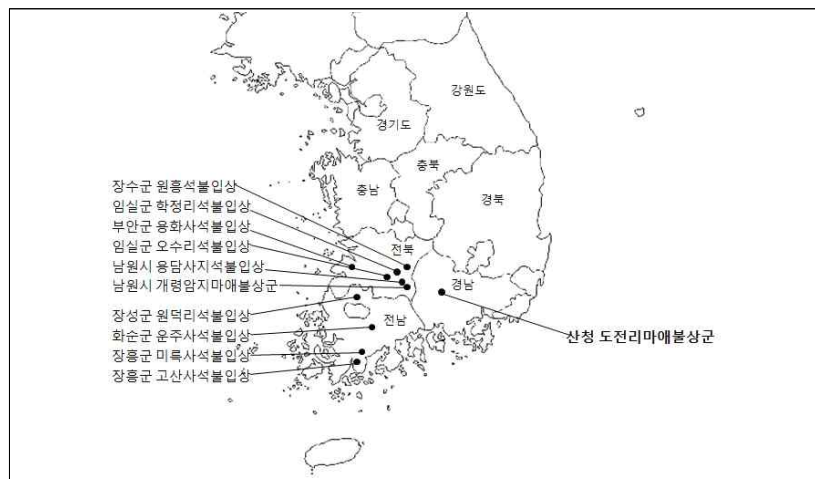


그림 5. 전라도 일대 공수형 수인 불상의 분포현황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결과 공수형 수인은 경북 경주 일대와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전라도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경주의 공수형 수인 불상은 대부분 좌상에 ‘一’자형으로 손을 감싼 대의 끝자락을 밖으로 빼낸 형태로 나타나고, 전라도 일대 불상은 대부분 입상의 거석불로 ‘一’자형과 ‘八’형이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전리마애불상군의 공수형 수인 불상들은 경주와 전라도 지역 불상들과 직접적으로 연관 짓기는 힘들지만, 형태는 전라도 일대 입상의 거석불들과 유사

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서쪽의 섬진강·남원문화권은 남원, 곡성, 구례, 광양, 순천 등지를, 동쪽의 남강·진주문화권은 진주, 하동, 산청, 함양 등지를 아우른다.

²¹⁾ 李康豪, 2008, 앞의 논문.

입상의 왼쪽 목 부분에서 팔꿈치에 이르는 곳에 ‘世田(?) 明月智佛’이라는 명문이 음각되어 있다. ‘明月智佛’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하나 남원지역에서 손이 옷자락에 가려진 형식의 상에 구체적인 신앙과 존격이 있었음은 짐작할 수 있다.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전리마애불과 같이 ‘군’을 이루고, 공수형 수인을 결한 불상이 확인되는 개령암지마애불상군도 도전리마애불상군이 위치한 산청에 인접한 지리산에 조성된 것으로 보아 이 일대에 자연암벽에 새겨진 ‘불상군’과 ‘공수형 수인’을 결한 불상과 관련한 신앙이 있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2) 선정인

도전리마애불상군에서 선정인을 결하고 있는 불상은 14, 17, 19, 24, 28, 29번 상으로 6구이며, 앞서 살펴본 공수형 수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수인에 해당한다. 선정인은 뚝섬, 군수리사지 납석제상과 같은 5~6세기대 불상에서 나타나다가 이후에는 찾아보기 힘든 수인이지만 도전리마애불상군에서는 공수형 수인 다음으로 많이 확인되고 있어 주목된다.

(3) 약기인

약함을 들고 있는 약기인을 결한 것 중 명확하게 남아있는 것은 18번 상 1구이며, 3, 5, 15, 26번 상은 잔존 형태를 통해 등근 물체를 가슴 높이에서 들고 있는 듯이 표현되었기에 약기인을 결한 상으로 추정하였다. 나머지 3, 5, 15, 26번 상은 왼손 위에 등근 물체를 올려놓고 물체 위에 오른손을 올려놓은 형태로 추정된다. 약함을 들고 있는 불상은 약사여래로 주로 경덕왕 이후, 8세기 말에서 9세기 중엽에 해당하는 시기의 혼란한 사회·정치적 상황에 의해 약사불이 신앙되면서 그 조성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 전통은 고려시대까지 이어졌으며 8세기후반 경주 이외의 지방에서 조성된 약사상은 印像과 지물이 經儀에 구애받지 않는 등 다양화와 지방화 경향이 나타난다.²²⁾

(4) 설법인

오른손을 가슴 위에 대고 왼손을 배 앞에 둔 형태로 주로 입상에서 확인되는 수인이다. 이와 같은 수인이 표현된 불상으로는 경주 남산의 삼릉계 선각마애삼존불입상, 장항리사지 석불입상, 샫갓골 석불입상, 왕정골 출토 석불입상 등이 있으며, 좌상의 예로는 홍천물걸리사지 대좌 중대석에 새겨진 좌상과, 경주 남산 장항리사지 석불입상의 광배에 새겨진 화불 등에서 확인된다.

도전리마애불상군에서는 7, 32번 상이 설법인을 결하고 있다. 7번 상은 가슴 앞에서 등근 물체를 안고 있는 듯 표현되었으며, 32번 상은 오른손 손등이 밖을 향하게 하여 드러난 가슴 위에 얹었고, 왼손은 현재 파손되어 알아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잔존형태를 통해 배 앞쪽에 내려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2) 林南壽, 2005, 「古代韓國 藥師信仰의 展開樣相과 造像」, 『史林』24, pp.73~100.



그림 6. 설법인을 결한 불상 예

(5) 하품인

하품인을 결하고 있는 상은 1번 상이 유일하다. 가슴 높이로 들어 올린 오른 손은 엄지와 검지를 구부려 맞대고 있으며, 왼손은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여 배 앞쪽에 내려놓았다.

도전리마애불상군의 수인을 살펴본 결과 5가지의 다양한 수인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중 가장 많은 수는 대의 자락에 손이 가려진 공수형으로 11구가 해당되고, 다음은 선정인으로 6구가 확인되었다. 불상의 수인은 불상의 존명을 결정짓는 요소로서 중요한데, 도전리마애불상군에서 존명을 알 수 있는 것으로는 하품인을 결한 아미타불과 약함을 든 약사불이 있다.

수인의 형식분류를 통해 주목할 만한 특징은 최상단에 위치한 감실 내부에 가장 큰 크기로 조성된 불상이 하품인을 결한 아미타불이라는 점과, 약사불이 확인되는 점, 가장 많이 표현된 수인은 다른 불상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공수형과 선정인이라는 점 등이다. 동쪽 최상단에 새겨진 아미타불이 전체 불상군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크기, 감실 내에 조성된 점 등으로 보아 주불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추정되며, 약사불도 함께 나타나고 있어 이 불상군은 현세구복적이고 대중 신앙적인 불교신앙을 배경으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2. 불상군의 유형별 특징

불상군이 새겨진 벽면은 퇴적암으로 이루어진 바위의 특성상 횡방향의 균열과 함께 판상(板狀)으로 떨어져나간 부분으로 인해 면이 균일하지 못하고 단이진 형태로 각 불상들은 조성이 가능한 공간에 맞추어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새겨졌다. 불규칙적인 결락면의 분포로 인해 정연한 모습으로 배열되지는 못하였지만, 조각기법 및 수인, 배치형태를 파악하였을 때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1) 1유형

1유형에 해당하는 불상은 1, 24, 26, 32번 상으로 2~5구씩 균을 이루는 다른 불상들과는 달리 단독으로 조성되었다.²³⁾ 불상의 크기도 40cm이상으로²⁴⁾ 다른 불상에 비해 10~20cm가량 크고, 조성 위치도 바닥으로부터 1m이상의 높이로 불상군의 분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다.

1번 불상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움푹 파인 공간 내에 조성함으로써 감실에 안치된 불상과 같은 효과를 내었으며, 하품인을 결한 유일한 상으로서 아미타불상을 표현하였다. 24번 불상은 선정인, 26번 불상은 약기인, 32번 불상은 설법인을 결하고 있어 불상군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선정인과 공수인을 제외한 수인을 결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 하겠다. 또 불신의 표현에서 저부조와 선각이 혼용된 다른 불상들과는 달리 전체를 저부조로 새겼으며, 낮고 둥근 육계와 타원형의 얼굴, 손목에서 늘어진 대의자락이 무릎 뒤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모습 등 수인과 착의의 표현에서도 다른 불상에 비해 정교하고 유려하게 조각되었다. 착의법 또한 1번상은 이중착의법, 32번상은 편단우견으로 각 1구씩이 유일하며, 나머지는 모두 'V'자형 통견식 착의법이다.

1유형에 해당하는 불상은 단독으로 조성된 점, 가장 높은 곳에 다른 불상들과 비교되는 큰 규모로 배치된 점, 특징적인 수인과 착의법으로 표현된 점, 불신 전체를 부조의 유려한 조각기법으로 표현한 점 등으로 볼 때 다른 상들을 대표하는 상으로서 조성되었다고 추정된다. 특히 동쪽 끝 최상단에 위치하며, 감실과 같은 공간 내에 가장 큰 크기로 새겨진 1번 아미타불상은 불상군 내 주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 2유형

2유형에 해당하는 불상은 14, 15, 17, 18, 19, 28, 29번상이다. 불상군이 조성된 3면 중 주로 중앙면에 분포하며, 'V'자형 통견식 착의법에 수인은 선정인, 약

²³⁾ 25번 불상은 26번 불상이 새겨진 암벽면이 떨어져 나간 아랫면에 새겨진 것으로 파악되며, 세부표현에 있어서도 유사점이 확인되지 않고 간략화된 모습으로 26번 불상이 조성될 당시 함께 조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²⁴⁾ 도전리마애불상군 불상의 총고(總高)(단위cm, ()는 잔존크기)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크기	52	32	36	26	28	(20)	24	18	18	19	20	(12)	28	43	42	26
번호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크기	45	44	39	9	25	27	26	(31)	(23)	53	(12)	35	37	(14)	(11)	(29)

기인으로 양손이 드러난 형태이다. 광배 내부를 파내어 얼굴과 상반신을 도드라지게 표현하고 하반신과 대좌는 선각으로 새긴 것으로 조각기법 B-a에 해당하며, 정연한 옷주름의 간격, 복부의 'U'자형 주름, 결가부좌한 다리에 감겨진 군의의 '('자형 주름, 입체감 있게 표현한 대좌 등에서 유사한 기법이 확인된다.

2유형의 불상들은 새겨진 위치(층)에 따라 14·15·17번, 18·19번, 28·29번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14·15·17번상은 전체 배치에서 정중앙에 위치하며, 대좌의 상면이 보이도록 표현되어 마치 위에서 내려다본 것처럼 새긴 것이 특징이다.

28·29번상은 27~31번에 해당하는 상들과 함께 같은 층에 조성되었으나 28·29번상을 제외한 나머지 상들은 상반신이 인위적으로 훼손된 상태이다. 남아있는 대좌 및 하반신의 형태로 보았을 때, 훼손된 3구의 불상도 28·29번상과 같은 유형이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18·19번상은 손목에서 늘어진 대의자락의 끝이 둥글게 마무리된 점, 두광과 신광 내부를 다른 상들보다 깊게 파낸 점, 같은 수인을 다르게 표현한 점이 주목된다. 18번 상은 약기인을 결하고 있는데, 겹친 두 손 위에 약함을 올려 받쳐 든 형태로, 약기인으로 추정되는 3, 5, 15, 26번 불상이 한 손 위에 약함을 올려두고 다른 손을 약함 위에 올려놓은 약기인 형태와 다른 모습이다.



그림 7. 약기인을 결한 불상의 손 위치 및 형태, 옷주름 표현 비교

또한 도전리마애불상군에서 표현된 선정인은 손을 가슴 높이로 들어 올려 양손을 겹쳐 끼운 듯 표현된 것이 특징인데 반해, 19번상은 왼손 위에 오른손을 포개 형태이며 위치도 배 앞으로 내린 형태로 다르게 표현되었다.



그림 8. 선정인을 결한 불상의 손 위치 및 형태, 옷주름 표현 비교

이와 같이 18, 19번 상은 다른 상들과 유사한 도상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나, 옷주름의 간격이 넓고 손목에서 흘러내린 대의자락 마무리의 형태가 다르며, 손의 위치 및 표현법에서도 차이를 보이는 등 같은 유형에 속하고 있지만 표현방식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다른 장인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2유형은 주로 중앙면의 중·하단에 위치하는 불상들 중 비교적 크기가 크고, 조각기법이 유려한 상들로 1유형에 속하는 24번 상을 제외한 5구의 선정인 불상이 이 유형에 속한다. 같은 유형 내에서도 세부 표현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상들이 확인되어 다수의 장인이 불상 조성에 참여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3) 3유형

3유형에 해당하는 불상은 2~11, 13, 16, 21, 22, 23번상이다. 조각기법상 B-b에 해당하는 선각에 가깝게 새겨진 상들로 표현방법에 있어서도 1·2유형의 불상들에 비해 착의 및 대좌, 수인의 형태가 간결하고 단순하다. 2~11번상은 불상이 새겨진 면의 향우측면에 배치되었고, 13, 16, 21, 22, 23번상은 중앙면에 위치한다. 중앙면에 배치된 상들은 2유형에 속하는 불상들 사이의 좁은 공간에 작은 크기로 조성된 점이 주목된다. 수인의 형식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공수형 수인을 결한 불상 11구가 모두 3유형에 속하며, ‘一’자형 공수형 수인은 향우측면에, ‘^’형 공수형 수인은 중앙면에 각각 위치한다. 3유형 내 불상의 특징 및 유사성을 가진 불상들을 묶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향우측면 중간층에 배치된 2~7번 상은 각각 약기인, 설법인, 공수형 수인을 결하고 있는데, 2(공수형)·3(약기인)번, 4(공수형)·5(약기인)번, 6(공수형)·7(설법인)번과 같이, 공수형 수인과 그렇지 않은 상이 번갈아 배치된 점이 흥미롭다. 8~11번상은 향우측면의 최하단에 위치하는데 바닥에 접한 좁은 공간으로 불상을 새기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이에 15cm이하의 작은 크기에 불신의 길이가 짧은 단구형으로 착의 및 대좌의 형태도 간략하게 표현했다.

다음은 중앙면에 위치한 13, 16, 21, 22, 23번 상이다. 먼저 13번과 16번 불상은 2유형의 14, 15, 17번 불상과 같은 층에 조성되었으나 비교하였을 때 부조 및 선각의 깊이가 얕으며, 착의와 수인도 간략하게 표현하였고, 대좌의 형태도 14, 15, 17번은 위에서 내려다 본 것처럼 대좌의 상면이 표현된 복련좌로, 13, 16번은 1단의 간략한 양련좌로 새겼다. 표현기법 및 크기, 배치를 살펴보았을 때 14, 15, 17번 상이 ‘주’가 된다면, 13, 16번 상은 부수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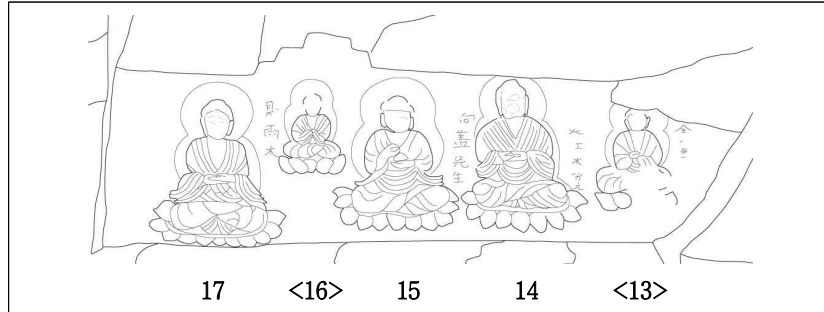


그림 9. 13~17번 불상 배치형태

중앙면의 하단에 위치한 21~23번 불상은 3구 모두 ‘∧’형의 공수형 수인을 결하고 있다. 불상 간의 간격이 매우 좁고, 21번 상의 경우 22번 상과 겹치지 않도록 우측 대좌의 연잎을 세장한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3유형의 불상은 1·2유형의 불상들 보다 세부표현이 간결하고 선각에 가깝게 새겨졌다. 또 공수형 수인의 불상을 ‘주’된 공간이 아닌 좁거나 한정된 공간 내에 새기려고 한 점이나 공수형 수인과 그렇지 않은 수인을 번갈아 배치한 점, 향우측면에는 ‘一’자형 공수형 수인을, 중앙면에는 ‘∧’형 공수형 수인을 배치한 점이 주목된다. 공수형 수인을 결한 불상이 주로 다불(多佛) 조성 시 확인되며, 도전리마애불상군에서 나타나는 위와 같은 배치의 특징의 통해 볼 때 전체 불상군에서 부수적 혹은 장엄적 요소로 새겼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도전리마애불상군은 유사한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부표현에 있어서는 다양한 표현법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배치와 조각기법, 수인에서 유사성을 띠는 불상에 따라 크게 3유형으로 나누어졌다. 조성당시에는 특정 수인을 결한 불상의 수량이나, 조성 위치 등 맞추어야 할 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로서는 결락면 및 훼손된 상들로 인해 조성당시 불상군의 전체배치 형태나 일련의 규칙성을 찾기는 어렵다. 또 같은 유형 내에서도 세부 표현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상들이 확인되고 있어 도전리마애불상군 조성 당시 다수의 장인이 제작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IV. 조성시기 및 명문검토

1. 조성시기

도전리마애불상군은 다수의 장인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이 상반신은 얇은 부조로, 나머지는 선각으로 처리하였고, 방향의 신체는 양감이 풍부하지 않고 탄력적인 부피감이 줄어든 형태이며, 옷주름은 간략화·도식화된 양식의 공통점이 확인되어 동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도전리마애불상군의 신체형태나 세부표현, 착의법 및 대좌의 형태를 살펴보고, 조성년대가 명확한 상들과의 비교를 통해 조성시기를 파악하고자 한다.

도전리마애불상군은 연화대좌 위에 결가부좌한 좌상의 형태이며, 대부분이 ‘V’자형 통견식 착의법에 원형의 두·신광을 가졌다. 낮고 둥근 육계에 나발은 표현되지 않았으며, 얼굴은 마모가 심하여 이목구비를 확인할 수 없다. 움츠린 어깨에 탄력 없이 평면적인 방향의 신체, 도식화된 옷주름이 특징이다.

도전리마애불상군의 대표적인 특징인 ‘V’자형 통견식 착의법은 8세기대에는 볼 수 없는 9세기 이후 조성된 불상에서 나타나는 형식이다. ‘V’자형 통견식 착의의 불상으로는 경주 창립사지 출토 석조비로자나불좌상(9C), 경북대학교박물관 석조비로자나불좌상(9C) 등이 있으며, 경주에서 출토된 석탑 탑신석의 사면불에서도 유사한 상이 확인된다. 경주 출토 탑신석에 새겨진 불상은 10~11세기로 편년되고 있는 것으로 원형의 두·신광, 단판의 연화대좌에 공수형 수인을 결한 점, 옷주름 표현 등 도전리마애불상군과 유사한 점이 확인되나 1, 15, 17, 24, 26번상과 비교하였을 때 탑신석에 새겨진 불상의 신체 및 옷주름 표현이 훨씬 간략화·도식화된 것으로 보아 도전리 상보다 후대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0. 국립경주박물관 야외전시관 석탑 탑신석 사면불상

이러한 'V'자형 통견식 착의법은 철원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865년, 도 34)과 같은 철불에서도 확인되며, 고려시대에는 전북 임실 오수리 석불입상, 전북 부안 용화사 미륵불입상, 전남 화순 운주사 석불좌상 등 전라도 일대로 확산, 고려 전기에서 12세기에 이르는 불상까지 계승되어 꾸준히 조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대의의 'U'자형 주름이 다리를 덮는 형식은 도전리상의 1, 2, 4번에서 나타나며, 이 역시 9세기대 석불좌상인 창원 불곡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과 대구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863년)에서 확인되는 대표적인 양식이다.²⁵⁷

이와 같이 도전리마애불상군의 대표적인 착의 형식은 대부분 9세기대 환조의 석불 또는 신라하대부터 고려초기에 이르는 시기에 조성된 철불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9세기대 부조상 가운데 도전리상과 비교가 되는 작품으로는 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의 탑신석에 새겨진 사면불이 있다. 도전리상은 상반신은 얇은 부조로, 나머지는 선각으로 처리하였고, 방형의 신체는 평면적으로 표현된 것에 반해, 9세기 상은 전체가 저부조로 조각되었으며, 신체는 입체감 있는 탄력적인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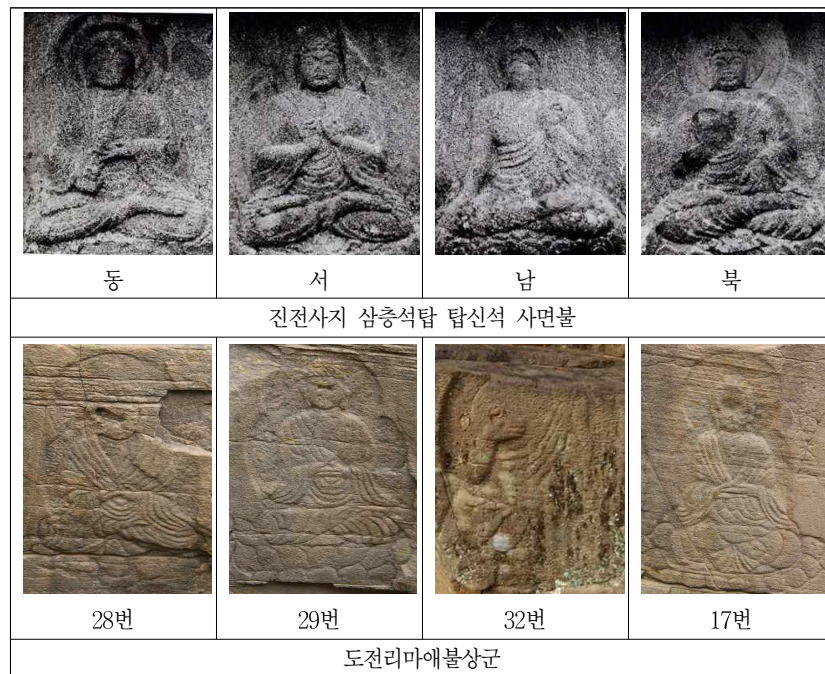


그림 11. 진전사지 삼층석탑 탑신석 사면불과 도전리마애불상군

²⁵⁷ 지강이, 2010, 「창원 불곡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에 관한 연구」, 『文物研究』 제18호, pp.66,67.

가슴 높이로 들어 올린 양 팔에서 늘어진 대의자락이 무릎 뒤로 넘어가는 표현이나 길상좌 형태의 다리에 감겨진 균의자락의 주름 표현 등, 도상은 9세기 대 불상과 유사하나 조각기법에 있어서 진전사지상은 신체의 굴곡을 따라 유려하게 표현된데 반해, 도전리상은 평면의 신체에 옷주름은 느슨하여 긴장감이 없으며, 일정한 간격의 주름은 도식화된 모습으로 9세기상과 차이를 보인다.

도전리마애불상군에서 가장 많은 수의 불상이 결하고 있는 공수형 수인은 앞서 수인의 형식분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전라도 일대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중에서도 도전리마애불상군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전북 남원 개령암지마애불상군은 도전리마애불상군과 같이 ‘군’을 이루고 있으며, 독특한 착의법 및 수인의 형태가 함께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입상이 공수형을 결하고 있으며, 착의법 또한 ‘V’자형으로 가슴을 드러낸 통견식 대의를 입고 있다. 좌상의 불상도 저부조의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이 유사한데, 도전리상에서 보이는 희귀한 형태의 설법인 수인이 개령암지마애불상군의 좌상에서도 확인된다.

개령암지마애불상군에서는 “天寶十”이라는 명문이 확인되어 917년에 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²⁶⁾ 즉 명문을 ‘明月知佛’, ‘毘盧遮羅佛’, ‘天寶十’으로 판독하고, ‘天寶’를 吳越(908~923)의 연호로 보아 ‘天寶十’ 즉 917년에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마모가 심하여 명문을 알아보기 힘든 상황이며, 문화재지정 당시 문화재청 안내 글에서는 명문으로 ‘世田’과 ‘明月智佛’만을 표기하였다. 명문을 제시한 다른 논문에서도 사진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실제 명문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²⁷⁾ 다만, 917년이라는 기년명이 확실히 증명될 수 있다면 10세기 전반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문화권

²⁶⁾ 이태호·이경화, 2001, 앞의 책, p.132.

개령암지(정령치)마애불상군에는 3곳에서 희미한 명문이 확인되는데, ‘明月知佛’, ‘毘盧遮羅佛’, ‘天寶十’이 그것이다. 명문 가운데 ‘天寶’는 吳越(908~923)의 연호이고, 정확히 읽은 것이 라면 ‘天寶十’ 즉 917년에 제작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²⁷⁾ 金鐘大, 1968, 『鄭嶺峙磨崖佛銘文과 淨蓮堂碑銘并序』, 『考古美術』 제9권 제9호.

I. 世田(?) / 明月智佛

II. 天普十王世人而 / □□ / 師士(?)

III. 十佛□滅陀羅尼 / 路□他惡普魯伽惡普 / □□□阿明伽曰(?)和帝比 / 是□□□白阿衍 / 跢他伽跢 / □視□訶

-秦弘燮, 『韓國美術史資料集成』(1) 三國時代~高麗時代, 一志社, 1987, p.241.

(1) 世田, 明月智佛

(2) 天普十王世人而, □□, 師士

(3) 十佛□滅陀羅尼, 路□他惡普魯伽惡普, □□□阿明伽曰和帝比, 是□□□白阿衍, 跢他伽跢, □視□訶

내에 자연 암벽에 새겨진 불상의 유행과 불상이 ‘군’을 이루며 조성된 배경이 되는 신앙이 존재하였음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도전리마애불상군의 대좌는 단판의 연화대좌로 양련, 복련, 양복련으로 선각되었다. 8~9세기대 단판 연화대좌는 연잎의 폭이 넓고, 모양이 또렷하며, 양감 있게 입체적으로 표현된 점이 특징이고, 10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대체로 세장한 연잎을 늘어놓은 형태로 나타난다. 도전리상의 대좌는 그 과도기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선각으로 새겼지만 입체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고, 위에서 내려다 본 것처럼 대좌의 상면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기년명이 있는 마애불상 중 도전리마애불상군과 비교할 수 있는 불상은 경주 배리 윤을곡마애불좌상(835년), 하남 교산동 마애약사여래좌상(977년이전), 이천 장암리 마애보살반가상(981년), 고려 개포동 석조관음보살좌상(985년) 정도이다. 전반적으로 지방색이 짙고 개성이 뚜렷한 상들로서 각 조성시기를 대표하는 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크게 통일신라말기의 전통 양식을 따른 것과 전통에서 벗어나 토속적이며 표현이 간결하고 투박한 상으로 나눌 수 있다. 경주 배리 윤을곡마애불좌상과 하남 교산동 마애약사여래좌상(도 35)이 전자에 속하며, 이천 장암리 마애보살반가상(도 36)과 고려 개포동 석조관음보살좌상(도 37)이 후자에 속하는 마애불이다. 도전리마애불상군의 경우 아담한 크기와 단정한 상의 이미지, 전통적 요소를 표현하고자 노력한 것 등으로 보아 후자보다는 전자에 가까운 상으로 볼 수 있다. 하남 교산동 마애약사여래좌상은 977년에 중수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977년 이전에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전통적 요소에서 벗어난 마애불들이 등장하는 시기는 980년 이후로 파악된다.

이상을 통해 살펴 본 결과 도전리마애불상군은 세부모습이나 자세, 착의법 등의 형식에서 통일신라 말기의 특징을 충실히 계승한 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체 표현이나 움직임 등에서 다소 헤이하고 형식화된 경향을 보인다. 통일신라기를 거쳐 고려에 이르면서 중앙의 미술활동이 약화되는 반면, 지방에서 활발한 조상활동이 이루어져 이른바 지방양식이 등장하게 되는데 도전리마애불상군 역시 통일신라 말기 양식을 따르고자 한 지방에서 제작된 불상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도전리마애불상군은 10세기 전반경에 조성된 불상으로 생각되며, 당시의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2. 명문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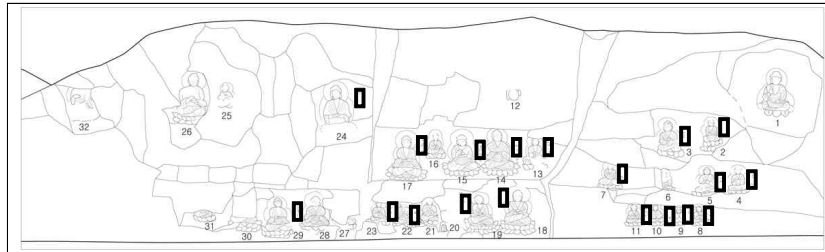


그림 12. 명문이 확인되는 불상과 명문의 위치

불상의 광배 좌측 또는 우측에는 음각 명문이 새겨져 있다. 명문은 현재 32구의 불상 중 19구에서 확인되며, 각 불상마다 3~5자씩 중행으로 새겼다. 불상과 함께 확인되는 명문은 방형의 구획 내에 제작시기 및 발원자, 조성동기 등을 새겨나가거나 정해진 범위가 없다하더라도 일정한 공간 내에 열을 이루며 새기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도전리마애불상군의 명문은 각 불상마다 마치 이름을 매기듯이 배치된 점이 특징이며, 대부분의 글자는 마모가 심하여 판독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명문에 대한 고찰로는 앞선 연구 중 성춘경의 판독이 있었다. 총 20구의 불상 좌측에 명문이 새겨진 것으로 보았으며 확인된 명문을 밝히고 있는데,²⁸⁾ 조사 당시와 현재의 마모 상태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지 현재로서는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 많다. 현재 판독이 가능한 자(字) 및 잔존 형태를 통해 추정된 명문의 판독 내용은 다음과 같다.²⁹⁾

²⁸⁾ 주5, 성춘경, 2007, 앞의 논문. (괄호 안의 번호는 본고의 불상번호임)

□昌長人 : 도8, 배치도② (2) / 世日□ : 도9, 배치도③ (3) / 山日忠八 : 도10, 배치도④ (4) / 平忠畝 : 도11, 배치도⑤ (5) / □□□ : 도12, 배치도⑥ / 菩薩禮均 / 도13, 배치도⑦ (7) / 不炎生 : 도14, 배치도⑧ (8) / 日入生 : 도15, 배치도⑨ (9) / □□生 : 도16, 배치도⑩ (10) / 豆休生 : 도17, 배치도⑪ (11) / 奎珍泉 : 도19, 배치도⑬ (13) / □□大公□ : 도20, 배치도 ⑭ (14) / 向盖先生 : 도21, 배치도⑮ (15) / 則□木三 : 도23, 배치도⑰ (17) / □氣大泉 : 도25, 배치도⑲ (18) / 阿鳥□ : 도26, 배치도⑳ (19) / 可□狼 : 도28, 배치도㉒ (22) / 得友泉 : 도29, 배치도㉓ (23) / 訓□□ : 도30, 배치도㉔ (24) / □己里狼 : 도33, 배치도㉘ (29)

²⁹⁾ 앞의 숫자 : 불상 번호

□ : 명문이 새겨진 흔적이 있으나 마모되어 판독이 어려운 것.
 () : 괄호 '앞의 字' 또는 괄호 '안의 字'로도 볼 수 있는 것.
 (?) : 괄호 '앞의 字'가 명확하지 않으나 추정할 수 있는 것.

표 3. 명문판독

2	□□□人	10	□□生	19	何鳥□
3	世□□	11	豆伏(休)生	22	□□狼
4	山□□人	13	全□象	23	得□□
5	平□舍(金)	14	火□水分大(木)	24	言(設)...
7	□薩(?)私(札)均	15	向盖先(光)生	29	□己里狼(?)
8	□□生	17	具(則)□水□		
9	□入生	18	□王□大象		

일련의 규칙성이 보이는 예로 8, 9, 10, 11번 불상의 좌측에 새겨진 명문이 모두 ‘生’으로 끝나고 있으며 인접한 2번과 4번 불상이 ‘人’으로 끝나는 점 등은 주목할 만하다. 生, 里, 先(光)生 등으로 끝나는 단어들로 미루어보아 불상 조성에 참여한 발원자와 관련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지역민의 공덕신앙과도 연관되는 것으로 생각된다.³⁰⁾ 명문들은 뜻을 알 수 없는 글이며, 판독된 글 중에서도 명확하지 않은 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내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 관련 자료의 축적과 연구를 통해 명문이 새겨지게 된 배경 및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풀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

V. 맺음말

도전리마애불상군에서 존명을 알 수 있는 불상은 아미타불과 약사불로 이는 현재구복적인 신앙의 대표적인 여래라 할 수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주요 교통로로 이용되어 사람들의 왕래가 잦았으며, 삶의 터전인 강을 따라 펼쳐진 나지막한 구릉의 절벽은 당시 유행한 불교와 예로부터 전해지는 산악숭배신앙이 융합된 장소로서 그 지역민들의 공덕신앙을 표출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불상군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유형에 해당하는 불상은 단독으로 조성된 점, 가장 높은 위치에 다른 불상들과 비교되는 큰 규모로 배치된 점, 특징적인 수인과 착의법으로 표현된 점, 불신 전체를 부조의 유려한

³⁰⁾ 지강이, 2005, 「咸安 防禦山 藥師三尊像에 관한 연구」, 『文物研究』제9호, p.101.

지방에서의 불사는 그 지방관리와 승려, 在地의 사람들이 참가한 結社에 의한 것이고, 그 목적의 대부분이 願主의 부모는 물론, 일절 중생 모두가 정토로의 왕생을 기원했던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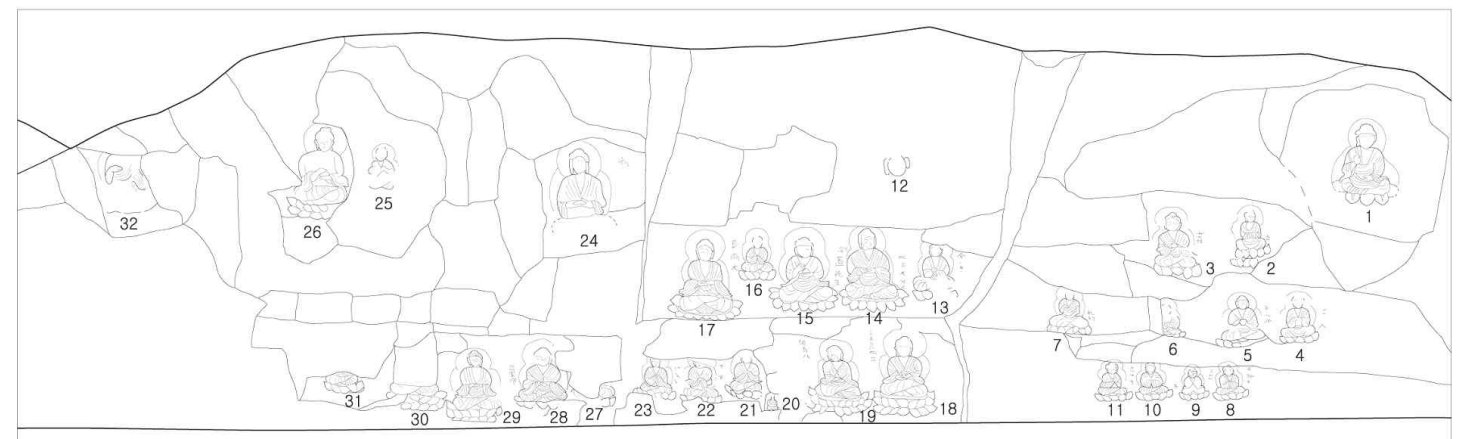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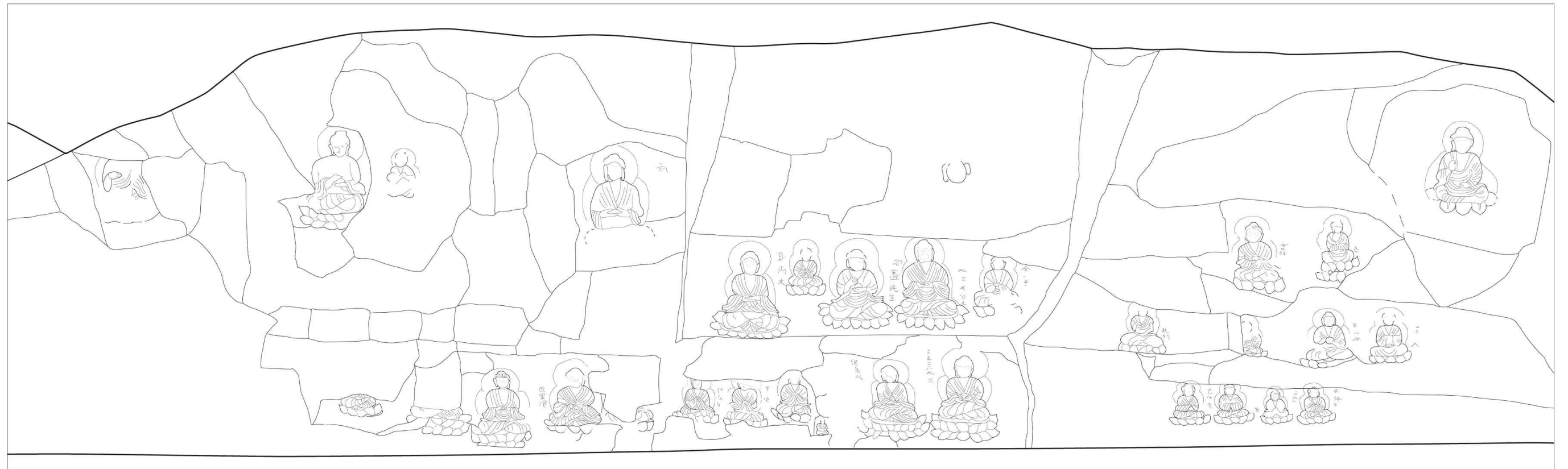
기법으로 표현한 점 등으로 볼 때 다른 상들을 대표하는 상으로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동쪽 끝 최상단에 위치하며, 감실과 같은 공간 내에 가장 큰 크기로 새겨진 1번 아미타불상은 불상군 내 주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유형은 주로 중앙면의 중·하단에 위치하는 불상들 중 비교적 크기가 크고, 조각기법이 유려한 상들이다. 같은 착의법 및 수인이라도 표현에 차이를 보이는 것을 통해 다수의 장인이 제작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3유형의 불상은 1·2유형의 불상들 보다 세부표현이 간결하고 선각에 가깝게 새겨졌으며, 공수형 수인을 결한 불상이 모두 이 유형에 해당한다. 공수형 수인의 불상을 '주'된 공간이 아닌 좁거나 한정된 공간 내에 새기려고 한 점이나 공수형 수인과 그렇지 않은 수인을 번갈아 배치한 점, 향우측면에는 '一'자형을, 중앙면에는 '∧'형 공수형 수인을 배치한 점이 주목된다. 공수형 수인을 결한 불상이 주로 다불 조성시 확인되며, 도전리마애불상군에서 나타나는 배치의 특징의 통해 볼 때 전체 불상군에서 부수적 혹은 장엄적 요소로 새겼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도전리마애불상군이 조성된 시기는 10세기 전반으로 태조 왕건은 분열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불교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였고 고려의 중심사상으로 삼았다. 당시 백성들은 정신적 귀의처로 불교를 신앙하였으며,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초월적인 힘에 의지하는 방법은 호소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은 신앙의 힘에 의지하게 되었다. 또 고려인들은 산신이나 하늘신을 모시며 복을 빌듯이 불보살에 대해서도 여러 불사를 통해 각자의 소원을 발원하였다. 예컨대 불상이나 불탑을 조성하거나 불구류를 시주하는 일, 불화의 제작이나 사경의 제작에 참여하는 일 등이 모두 발원을 위한 대표적인 불사들이었다. 고려시대에는 이러한 불사가 개경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서도 행해졌으며, 고위 관료뿐만 아니라 폭넓은 계층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는 산청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이다.

왜 32구의 여래상이 이곳에 새겨지게 되었는지에 관해서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인근에 공수형 수인을 결한 유사한 형태의 개령암지마애불상군이 조성된 점으로 미루어보아 공수형 수인, '군'을 이루는 불상과 관련한 신앙이 이 지역에 유행하였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이와 관련한 문헌기록이나 사찰에 대한 자료가 전무한 상황으로 특정 종파나 신앙 등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없지만 앞으로의 관련 자료 축적과 꾸준한 연구를 통하여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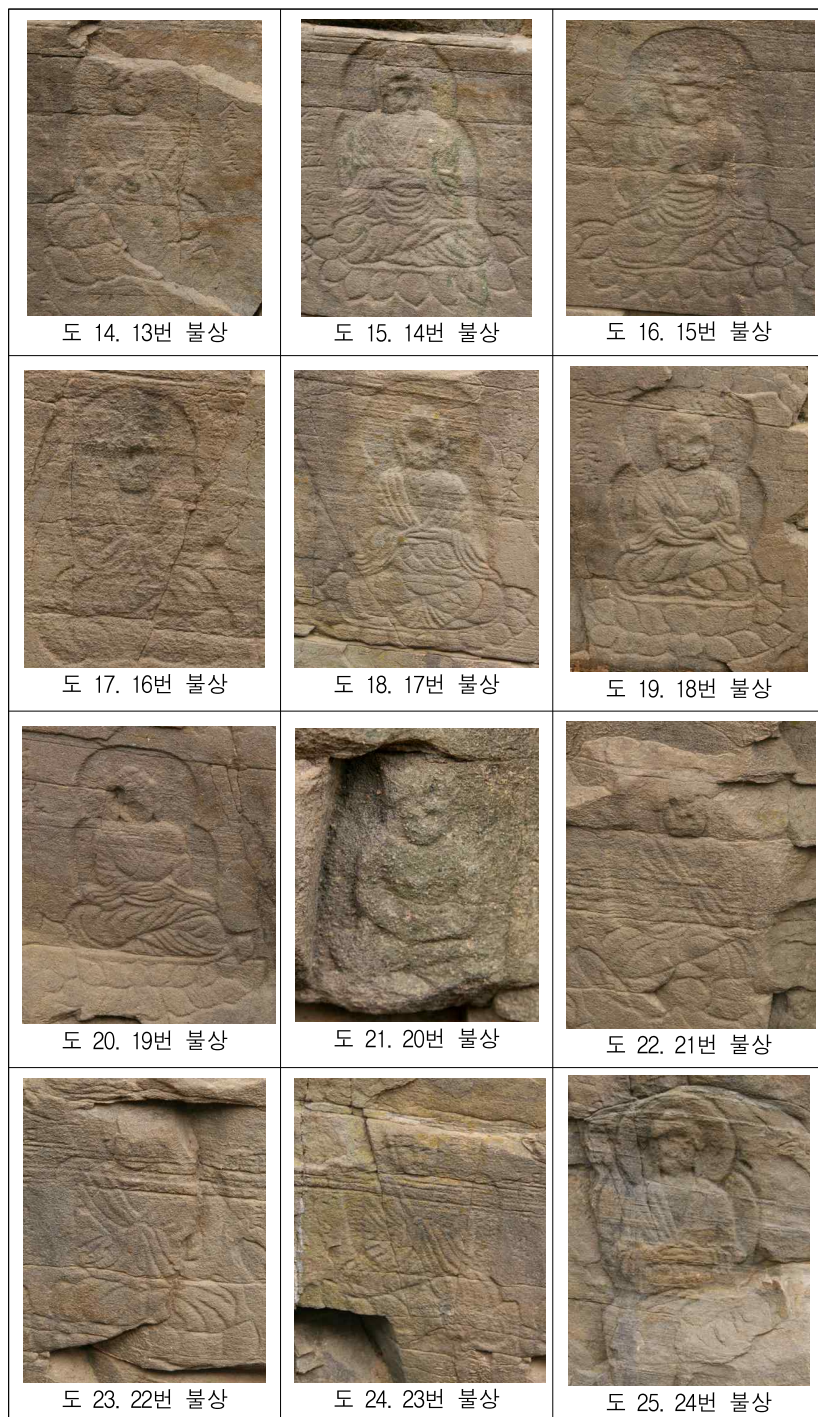
■ 투고일 2011년 6월 30일 | 심사완료일 2011년 8월 15일 | 게재확정일 2011년 8월 30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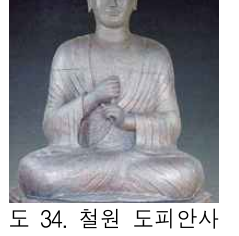
圖 版



도 1. 산청 도전리마애불상군 실측도 (사진 일러스트, 1/20)





		
<p>도 26. 25번 불상</p>	<p>도 27. 26번 불상</p>	<p>도 28. 27번 불상</p>
		
<p>도 29. 28번 불상</p>	<p>도 30. 29번 불상</p>	<p>도 31. 30번 불상</p>
		
<p>도 32. 31번 불상</p>	<p>도 33. 32번 불상</p>	<p>도 34. 칠원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865)</p>
		
<p>도 35. 하남 교산동 마에약사여래좌상(977이전)</p>	<p>도 36. 이천 장암리 마에보살반가상(981)</p>	<p>도 37. 고령개포동 석조관음보살좌상(985)</p>

참고문헌

<報告書·圖錄·單行本>

- 慶尙南道, 1995, 『慶南文化財大觀』, 錦昌印刷社.
국립중앙박물관, 2008, 『영원한 생명의 울림 통일신라 조각』.
국립진주박물관, 2011, 『산청』.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박물관, 2006, 『래여래반다라』.
산청군·경상대학교박물관, 2006, 『文化遺蹟分布地圖』-山淸郡-.
임실군·군산대학교박물관, 2004, 『임실 오수리·학정리 석불입상』.
金吉雄, 1994, 『高麗의 石佛像(石造·磨崖巨像)』, 法仁文化社.
山淸郡誌編纂委員會, 2006, 『山淸郡誌』上.
이태호·이경화, 2001, 『한국의 마애불』, 다른세상.

<論文>

- 강필중·박석환, 1975, 『한국지질도 삼가도폭 및 설명서』, 국립지질광물조사소.
金鐘太, 1968, 「鄭領峙磨崖佛銘文과 淨蓮堂碑銘并序」, 『考古美術』제9권 제9호.
朴洪國, 2005, 「手印이 法衣에 가려진 新羅 佛像 小考」, 『新羅文化』26.
산청군, 2001, 『도전리 마애석불군 정비공사 보존처리』, 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
과학연구소.
성춘경, 1999, 『전남불교미술연구』, 學研文化社, pp.113~116.
_____, 2007, 「山淸 道田里磨崖佛群의 考察」, 『文化史學』제27호, 韓國文化史學會.
李康豪, 2008, 「高麗前期 南原地域 石造佛像 研究」, 弘益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지강이, 2005, 「咸安 防禦山 藥師三尊像에 관한 연구」, 『文物研究』제9호.
_____, 2010, 「창원 불곡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에 관한 연구」, 『文物研究』제18호.
최석원·이찬희·서만철, 2001, 「산청 도전리 마애불상군의 산출상태와 훼손 및
보존방안」, 『지질학회지』제37권 제3호 통권148호, 대한지질학회.
한정식·서만철, 2003, 「사진을 이용한 도전리 마애불 3D Modeling (3D
Modeling use a Photograph, Rock Cliff Buddha, Dojeonri)」, 『문화
재과학기술』Vol.2.

Abstract

A Study on the Buddha Images Carved on the Cliff in Dojeon-ri, Sanchung

Kim, Soon-Jung

The Rock Cliff Buddha Images of Dojeon-ri were carved on the cliff surface of the Yangcheon River, which flows through Sancheong-gun, Gyeongsangnam Province. The 32 Buddha images all sit on the lotus pedestals and have circular haloes behind the heads and bodies. There are many different ways of dressing and finger signs with the covered-shoulders style dressing method and the Gongsu type finger sign dominating among them. Unlike the Buddha images with a feeling of massiveness in the 9th century, they are planar throughout the bodies and have schematized clothes creases, which suggests that they must have been built around the 10th century. The inscriptions are found in three to five columns on the right or left side of the Buddha images. Most of them are severely worn out and thus difficult to read. In the 10th century when the Buddha images were built, the powerful clans were active throughout the era of confusion. People chose Buddhism for their spiritual peace, and the period saw a large number of Buddhist rituals. The Buddhas whose names were checked were the main Buddhas of the Rock Cliff Buddha Images of Dojeon-ri are Amitabha and Bhaisajyaguru, which are good examples of Buddhas people believed in for seeking out fortune in this world. The cliff stands along the river, which must have been used as the main traffic route for years. The cliff surface must have been regarded as the ideal place to carve Buddha images as a result of a combination of Buddhism that was popular in those days, the faith of mountains and rivers, and faith of rocks.

Key Words : Buddha Images Carved on the Cliff in Dojeon-ri, finger signs, covered-shoulders style dressing method.

